

경제

광주·전남 제조업 생산·수출 호조

대형마트 매출·승용차 신규 등록 늘어 경기회복 기대감

지난해 말 광주·전남지역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매출과 승용차 신규 등록도 크게 늘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7%→23.8%), 전기장비(16.9%→60.7%), 전자부품(39.2%→69.7%)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남(8.3%→20.1%)은 가타 운송장비(-31.6%→-26.4%)의 부진에도 화학제품(7.2%→38.9%), 1차 금속(4.7%→6.0%)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며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월 중 소비는 대형마트 판매가 9월 이전의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하고 12월 중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도 전년도보다 168.9% 급증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주)우리술 직원들이 25일 광주시 광산구 공장에서 햅쌀과 울금으로 빚은 '울금주'를 생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토종 막걸리 새해도 '상종가'

광주 '울금주' 이마트 전국 매장 첫 납품 등 시장 공략

광주 토종 막걸리가 대형 유통업체의 전국 모든 매장에 첫 납품 되는 등 '상종가'를 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주요 막걸리 생산업체도 지난해 '막걸리 열풍'을 잇기 위해 올 생산 물량을 늘려잡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다.

탁상산하는 '나누우리'의 생산량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20만8천여병을 생산, 2억5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데다 1월들어서도 지난해 말 월총매출 115천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광산구 비아 주조장도 시장 반응을 따라 물량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막걸리 선호증이 형성되면서 큰 재미를 봤다"며 "막걸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 당연히 물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막걸리 생산량 확대는 지역 쌀 농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햅쌀 막걸리를 생산하는 지역 5곳 업체가 3개월 동안 원료로 쓴 햅쌀이 45t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막걸리 양산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쌀의 소비를 확대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 '나누우리' 등 햅쌀 막걸리도 수요 급증

지역업체 생산량 대거 늘리고 매출 확대 분주

2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광주·전남 막걸리 생산업체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주)우리술은 지난 7일 이마트측과 납품계약을 맺고 22일 현재 전국 127개 매장에 '울금주' 1만4천병(750ml 기준)을 공급했다.

지역 업체들이 광주·전남 유통업체에 막걸리를 공급한 적은 있지만, 전국에 납품한 것은 '울금주'가 처음이다. 한양제인 울금 성분이 함유된 '울금주'는 혈액순환, 통증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입소문이 나서서 지난해 4월 출시된 후 같은해 12월 롯데마트 광주점, 농협 하나로마트를 공략했다.

이 업체 박찬대 사장은 "이마트측에서 경쟁업체를 의식해 우리술을 독점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여서 막걸리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

전남도와 햅쌀을 원료로 한 막걸리를 생산하기로 협약을 맺은 광주·전남 주요 생산업체 5곳도 본격 양산체제를 가동한 데 이어 물량을 늘려잡고 있다.

현제 이들 업체가 한 달 동안 생산한 햅쌀 막걸리는 300만병(750ml 기준)에 달해 비수기인 겨울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택배수요도 늘고 있다. 순천농협도 순천 주조공사에 위

탁상산하는 '나누우리'의 생산량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20만8천여병을 생산, 2억5천만원의 순이익을 올린 데다 1월들어서도 지난해 말 월총매출 115천병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 첫날

창구 문의만 ... 갈아탄 고객 없어

펀드 투자자들이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 시행 첫날인 25일 광주 지역 증권사 창구에는 문의 전화만 이따금 걸려오고 실제 내방객도 거의 없는 등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은 향후 펀드 판매사를 옮길 경우를 가정해 서비스 내용이나 혜택, 절차 등에 관심을 표시하면서도 아직은 판단이 서지 않는 듯 '관망 자세'를 보였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2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전남 북 지역 9개 지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펀드판매사 이동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증권 광주중앙지점, 신한금융 투자 광주지점 등에도 펀드사 이동에 대한 고객 문의는 있었으나, 실제 투자를 바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은경 미래에셋증권 광주지점 관계자는 "아직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탓인지 펀드사를 바꾸겠다는 고객은 없었으며, 문의하는 투자자도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은 "판매사를 옮겨오고 싶다고 문의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며 "당사자들은 대부분 기존 거래 증권사나 은행의 수익률과 부가 서비스 등에 불만을 느끼고 있던 분들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작년 체불임금 43% ↑

9,379명 370억원

실 명절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의 체불임금이 크게 늘어나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광주와 전남지역(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구례·곡성) 체불임금은 3천635개 사업장, 9천379명, 37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8년말 3천350개 사업장, 8천287명, 259억원에 비해 각각 8.5%, 13.1%, 42.8% 늘어난 것이다.

고석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지역 건설사들의 잇단 퇴출 등으로 체불임금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광주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팀을 가동,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기업 행정지도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영지·자라·로열젤리 등 7종

건강식품 원료서 퇴출

영지버섯과 자라, 로열젤리 등이 건강기능식품 원료에서 퇴출됐다.

25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영지버섯과 운지버섯, 표고버섯 등 버섯과 자라, 화분, 효소, 효모, 식물추출물발효제품, 로열젤리 등 식품 7종이 건강기능식품 원료 고시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지난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도입된 이후 3년간 실시된 기존 '건강보조식품' 재평가에서 이들 원료가 가능성을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2008년 건강기능식품 원료집인 공전을 개정하면서 이 7종을 삭제했으며 지난해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검증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7종 전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필수 기자 penfoot@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Item Name and Value. Items include 코스피지수 (1,670.20), 코스닥지수 (534.22), 금리 (4.26%), and 원·달러 환율 (1,150.00원).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Motel, Bathhouse, and various commercial building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수원지구 롯데마트앞 펠리스타워빌딩' (Suwon Jigu Lotte Mart Front Pelis Tower Building) with detailed floor plan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Real Estate Company)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across different districts.